

News

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추고, 기업대출 엄격하게

디지털타임스

한국은행 조사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에 따르면, 올 3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6으로 전분기대비 낮아져... 가계대출은 증가율 둔화 대응해 완화적 태도 유지할 것
기업대출 태도지수는 대기업이 전분기 3에서 -6으로 낮아지고, 중소기업도 전분기 6에서 -6으로 낮아져... 신용위험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국민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취약차주 이자 부담 줄여준다

이데일리

KB국민은행,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 시행한다고 발표...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 차원
지난 4월 시행한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를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운영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연장

예적금·대환대출 플랫폼 추진...“소비자 편익 vs 빅테크 종속”

데일리안

금융위원회,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하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 은행간 금리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취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9개 플랫폼 업체가 희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예·적금 상품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될 때까지 관련 규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면제하겠다는 의미

온투업계 “중금리 대출 시장 잡아라”... ‘앱’으로 대출 가능하도록 변신

조선비즈

온투업에 등록된 P2P 업체들, 중금리 대출 시장 공략에 사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기존 웹 기반 서비스를 앱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집중
업계는 대출 경쟁을 위해 앱 등 이용이 편리한 인프라 확충 필요 판단... 피플펀드와 어니스트펀드, 개발자 등 인력 전체 40~50%

코로나 엔데믹에도 웃지 못하는 생보업계...신계약 규모 ‘내리막길’

시사저널이코노미

지난 4월말 기준 23개 생보사들의 신계약 건수 563만 2,86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 신계약 금액도 88조 6,7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6% 급감
대형 생보사들도 줄줄이 감소세... 경기 악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영업 환경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수익성 낮은 ‘미니보험’...경쟁 더 치열해진다

이코노믹리뷰

보험업계, 미니보험 시장을 겨냥한 생활 밀착형 신상품 출시 급증... 하반기부터 새로운 디지털 손보사 시장활동 예상되어 미니보험 출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 예상
카카오 모빌리티, 이달 운전자보험 출시... 삼성화재, 온오프 미니운전자보험 출시...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MZ세대와의 관계 형성이 수월한 상품군이기에 때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필요하다면 ‘금지’ 검토”

뉴스1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 관련 필요하다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표현
그간 당국은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출 자국 우려가 있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디폴트옵션 오늘 도입...업계 경쟁 속 혼란 우려도

이데일리

오늘부터 디폴트옵션 도입... DC형과 IRP에 디폴트옵션 도입... 상품은 오는 10월 공시 예정... 빠르면 연말에 디폴트옵션 도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이 들어가며 가입자들이 여전히 예·적금상품에 몰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할 수 없습니다.